

칠절봉 신갈나무림의 종조성과 토양환경

이호준, 정홍락, 전영문, 홍문표, 배병호

건국대학교

칠절봉은 향로봉산맥의 주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1172.3m의 고봉으로 행정구역상 고성군과 인제군에 걸쳐 있다. 특히 칠절봉의 남동쪽 지형은 험준한 관계로 북서쪽에 비하여 식생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본 조사는 1996년 6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칠절봉 능선 좌우사면에 우점종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신갈나무림을 대상으로 하여 Blaun-Blanquet(1964)의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따라 조사하였다. 신갈나무군락은 철쭉꽃하위아군과 큰개별꽃하위아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식별종은 신갈나무, 당단풍, 대사초, 미역줄나무, 피나무, 노루오줌, 단풍취 등이다. 토양환경은 두 하위아군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으나 N, EC, Ca, Mg 에서 큰개별꽃하위아군이 철쭉꽃하위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면의 경사도가 비교적 가파르고 초본층의 식피율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 초래된 토양의 세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지역의 신갈나무 DBH 분포를 보면, 21cm 이상되는 중·대경목의 전체 분포 비율이 47.1% 로서 조사된 다른지역의 신갈나무군락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